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AFTERLIFE OF STARS

가제 : 별의 사후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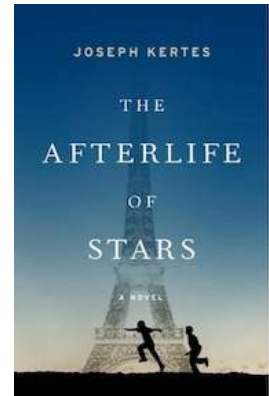
저자 : Joseph Kerte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헝가리 혁명이 한창이던 1956년 가을, 러시아군을 피해 프랑스로 달아난 유대인 가족

1956년 10월 24일, 로버트는 아홉 살이던 그 해에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헝가리를 떠나서 파리로 달아났다. 학교에서 산수 수업이 한창일 때 반 친구들이 하나 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끌려 교실 밖으로 나가더니, 로버트에게도 할머니가 찾아왔다. 거리로 나서자 새빨간 별이 크게 붙어 있는 탱크가 딱 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탱크 안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타고 있지만, 거리에 모인 군중의 시선은 일제히 다른 쪽으로 쏠려 있었다. 가로등마다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여덟 명의 헝가리 병사들이었다. 할머니는 얼른 가자고 로버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로버트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몇몇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몸이 가로등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허가 밖으로 나와 축 늘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명은 묘하게도 얼굴이 꼭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몸을 꿈틀대는 군인도 보였다. 하지만 로버트가 주시한 사람은 초록색 눈을 가진 병사였다. 로버트가 조심스레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짙은 초록색 눈만 보일 뿐, 눈에 빛이 사라진 후였다. 그 광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흐느꼈다. 누구도 크게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울음을 겨우 삼켜가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거리 반대쪽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어떤 여자가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누가 레코드 판을 틀어놓은 모양이었다. “누가 대체 이 상황에 노래를 틀었던 말이야?” 할머니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면서도 로버트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로버트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손에 끌려 가장 좋아하는 빵집으로 가서 가장 좋아하는 빵을 먹었다. 스탈린의 사진이 광장 곳곳에 내걸린 헝가리, 이 날의 음악과 시내 풍경이 헝가리에서 보게 될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아홉 살, 열세 살 두 형제가 목격한 역사의 잔인한 현장, 사라져버린 고향의 이야기

헝가리 혁명이 한창이던 1956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버트는 네 살 많은 형 아틸라와 부모님, 할머니, 삼촌, 뱃속에 아기가 있는 이모와 함께 할머니의 동생이 있다는 파리로 떠났다. 두 형제는 위험천만한 그 여행길에 보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일들, 그리고 또래 친구들은 평생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수없이 목격한다. 그러나 그 충격과 공포를 마음대로 드러낼 수도 없었다. 마음속 깊이 그 모든 일을 꺾꺾 눌러가며, 계속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지뢰밭과 같은 사건들이 로버트의 가족들이 가는 길 내내 따라다니고, 붙들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만으로도 괴로운 이들에게 온갖 고난이 이어진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겉으로 드러난 가족의 오랜 비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상실해야만 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로버트의 가족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여행길에 나선 수상한 여행자들이 이들의 위태로운 여정을 더욱 험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로버트와 아틸라, 두 형제의 성장기가 놓여 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틸라는 번개처럼 빠른 판단력과 단순한 추진력을 보유한 아이인 반면, 로버트는 정반대로 느긋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아이였다. 그러나 두 형제 모두 호기심도 많고 유난히 영민한 아이들이었고, 특히 그 나이에 겪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을 겪으며 또래들보다 더욱 성숙해진다. 두 형제의 자연스러운 라이벌 구도가 험난한 가족사와 잘 녹아 들면서 이야기를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든다.

인내와 믿음, 깨뜨릴 수 없는 형제애와 가족, 그리고 ‘집’의 상실이 의미하는 것을 우아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특유의 유머 넘치는 문장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셉 커티스(Joseph Kertes)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1956년 혁명이 일어난 후 가족들과 캐나다로 도망을 왔다. 요크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소설 『Gratitude』로 ‘내셔널 유대인 도서상(National Jewish Book Award)’을 수상했다. 현재 캐나다 험버 컬리지 예술공연학과의 학장을 맡고 있다.

제목 : THE HORMONE FACTORY

가제 : 호르몬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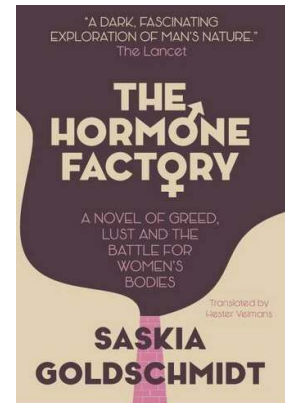
저자 : Saskia Goldschmidt

출판사: Saraband

발행일: 2016년 3월 24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소설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네덜란드에 제약회사를 세운 한 남자의 무서운 욕망과 탐욕

뇌졸중으로 쓰러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서 저승사자를 기다리는 노인이 있다. 그의 나이도 90대에 접어들고, 화려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의 생애가 저물어가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스라가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모습을 TV 뉴스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간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본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만은 또렷한 그의 이름은 모르데하이.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제약 산업에 뛰어들어 합성 호르몬을 개발하고 그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권력에 취해 살아온,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전해진다.

모르데하이와 쌍둥이 형 애런은 두 사람이 스물일곱 살이던 1920년대에 대대로 가족들이 운영해온 푸줏간을 물려 받았다. 다른 가족들처럼 심성이 울긋고 바른 애런과 달리 모르데하이는 야심만만하고 언제나 더 큰 세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던 청년이었다. 그렇게 형이 배경에 남아 조용히 살아가는 동안, 모르데하이는 1923년에 독일에서 건너온 유대인 과학자 르빈과 합심하여 ‘파마콘’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한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분야였지만 잠재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날카롭게 꿰뚫어보았고, 동물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파마콘의 인슐린은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갔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다. 파마콘은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한 끝에 과학적으로 귀중한 발견이 이어졌고 회사도 점점 덩치가 커졌다. 독일에서 온 유대인만 직원으로 고용하려는 르빈 때문에 모르데하이는 다소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자신도 독일 출신 과학자의 딸인 리브카와 결혼하여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건 겉모습에 불과할 뿐, 모르데하이는 회사가 크는 만큼 더 막강해진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 여자 ‘사냥’에 발 벗고 나섰다. 자신이 원하면 누구나,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과대망상증이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그는 회사 여직원들을 한 명씩, 자기 사무실로 불러다가 유혹하고 성적 유희를 즐기는 생활에 빠져들었다. 주체할 수 없는 그의 욕망에 죄의식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돈이 얼마가 들든 피임약을 개발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만나는 여직원들을 호르몬 치료를 테스트해보는 대상으로 여겼다. 이 그릇된 자만심은 결국 엉뚱한 사람이 희생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세계 최초로 인슐린과 피임약을 만들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업적에 가려진 자본주의의 이면

형 애런이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성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르데하이는 깜짝 놀라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파마콘에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던 테스토스테론을 동업자인 르빈 몰래 형에게 준다. 애런은 일순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버리고, 수습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 1938년, 애런은 모르데하이의 일은 끝까지 누설하지 않은 채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감옥에 들어간다. 위기를 겨우 넘긴 모르데하이에겐 히틀러라는 거대한 위협이 뻗치기 시작하자, 그는 승승장구하던 회사를 포기하고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 결국 죄어오는 히틀러의 감시망에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나지만, 그간 남편이 벌여온 문란한 생활을 다 알게 된 리브카는 결혼 생활에 중지부를 찍는다. 모르데하이는 아쉬운 마음이나 미안함보다 파마콘을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을지 더 고민하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인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모르데하이는 오랜 사업 파트너인 르빈과도 결별한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독일 출신이라 사업 회생에 악영향을 주고 방해가 될 거라는 냉정한 판단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도, 형도,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업자인 르빈도 끝없는 모르데하이의 탐욕에 희생된 제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삶이 끝을 향해가는 병원 침상에서도, 모르데하이에겐 반성이나 회한은 없다. 나르시즘의 극에 달한 그의 놀라운 자기애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괜찮다고 여기는 냉혹한 자본주의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실제로 1920년대와 3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호르몬 생산 업체로 큰 성공을 거둔 ‘오가논 제약’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나치 강제수용소인 벨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간신히 살아 남은 저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더욱 현실감이 느껴지는 소설로, 성공을 향해 달려든 한 인간의 놀라운 정도로 매서운 탐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사스키아 골드슈미트(Saskia Goldschmidt)는 네덜란드 작가로, 청소년 연극 프로듀서 겸 연극 교사로 활동했다. 성장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쓴 『Compulsory Happiness』를 발표했고, 데뷔 소설로 네덜란드에서 『The Hormone Factory』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제목 : ASYMMETRY

가제 : 비대칭

저자 : Lisa Halliday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7년 8월

분량 : -

장르 : 소설



작가를 꿈꾸는 20대 여성과 입국을 거절당한 청년, 전혀 다른 듯 묘하게 닮은 두 이야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비대칭’이라는 제목에 담긴 이 책은 두 소설의 내용도 문체도 아주 다르지만, 차례로 읽다 보면 두 이야기 사이에 미묘하게 형성된 연결고리가 느껴진다. <어리석은 짓(Folly)>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는 20대 앨리스는 나이가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인 노작가를 만나고, <광기(Madness)>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설에는 2008년, 런던 히스로 공항에 붙들린 아마르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는 미국 뉴욕에 살고 앨리스가 겪는 일들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과 입국 심사장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아마르가 이라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접점을 찾는다. 그러나 드러나는 공통점은 시작에 불과하다.

앨리스가 남자를 만난 곳은 ‘미스터 소프트’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머리가 하얗게 섰던 그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옆에 앉았다. 앨리스는 책 하나를 들고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아 괴로워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도 직접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앨리스가 읽던 책에 관심을 보였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흥미로운 시선을 던졌다. 앨리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남자가 옆에 앉을 때부터 이미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아마 그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스물다섯 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 일을 하는 앨리스가 일하는 사무실 복도에도 남자의 사진과 사진기사가 붙어 있을 정도였다. 폴리처 상을 몇 번이나 받은 그 유명한 작가는 그 우연한 만남 이후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앨리스와 몇 번 더 마주친 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거대한 건물에 자리한 남자의 집은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남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물잔부터 건네며 마시라고 했고, 다짜고짜 앨리스의 가방 검사부터 했다. 유난히 큰 침대와 뉴욕의 하늘 풍경이 멀리까지 내다보이는 그 은밀한 남자의 거처에서, 두 사람의 애매모호한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앨리스를 ‘인어’라 부르기 시작한 남자는 고급 버건디 색 가죽 지갑에 이어 시계, 향수 등 갈 때마다 선물을 안겨주었고, 건강 문제로 자신은 먹지도 못하는 와인과 쿠키를 매년 앨리스를 위해 준비했다.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

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과 부당한 현실이 만들어내는 세상살이의 도박 같은 덧없음

두 번째 이야기, <광기>는 아마르가 로스앤젤리스에서 탄 비행기에서 내려 히스로 공항에서 끝 없는 질문에 시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입국 심사원은 아마르가 영국에 단 이틀만 머물 것이고, 해외특파원으로 와 있는 알래스테어 블런트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그 다음 일정까지 묻기 시작했다. 아마르는 이스탄불로 가서, 디야르바키르 주를 거쳐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구에 들어갈 거라고 순순히 대답했다. 거기에 형이 있기 때문이다. 심사원은 이라크를 방문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캐물었고, 아마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졸업 논문을 다 썼으니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고 대답했다. 전공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마르를 보내주지 않았다. 영국에 와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년 전 취업비자로 와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자, 왜 여권에 도장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여권이 망가지는 바람에 새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급기야 이틀간 영국에 머문 뒤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전자티켓이라 아직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마르는 완전히 수상한 인물로 찍히고 말았다. 2008년의 마지막 주말을 공항 대기실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앨리스와 아마르,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 명예, 재능, 행운, 부당한 일들과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고 비대칭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어느 순간 연장선상에 놓인 것처럼 공통점이 느껴지는 두 소설은 인간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가끔은 얼마나 도박 같은 덧없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지 잔인할 정도로 또렷하게 그려낸다.

<저자 소개>

리사 할리데이(Lisa Halliday)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런던의 출판 에이전시 ‘와일리 에이전시(The Wylie Agency)’에서 근무했다. 2005년에 발표한 첫 소설 『Stump Louie』은 「Paris Review」에도 소개됐다. 현재는 밀라노에 살면서 프리랜서 에디터 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제목 : SHINING CITY

가제 : 빛나는 도시

저자 : Tom Rosenstiel

출판사: Ecco

발행일: 2017년 2월 2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남들이 보지 못한 진실, 정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2인조 ‘해결사’의 대활약

피터 레나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 랜디 브룩스와 함께 ‘해결사’로 불렸다. 하지만 가끔 레나는 그 별칭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일을 알아낼 줄 아는 능력, 레나와 브룩스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다. 소위 힘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라보고 두 사람을 찾아왔다. 하원의장이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해, 유명 미식축구 팀이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선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기 위해 레나와 브룩스의 손을 빌렸다. 레나는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원한다면 깊은 곳에 묻어주었다. 신속하지만 조용하게, 끈질긴 인내와 뛰어난 기술로 무장한 두 사람에게도 일의 원칙은 있었다. ‘컨설팅’이라 칭하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 같은 사람에게만, 충분히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의 인생만 지켜주자는 것이 두 사람의 변치 않는 기준이었다. 각각 특수요원 출신, 아이비리그 출신 수재인 레나와 브룩스의 그 신념을 지켜왔지만, 백악관이 접촉해오면서 처음으로 그 굳건한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백악관이 두 사람에게 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에드먼드 매디슨이라는 사람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이 점 찍은 인물이었다. 법조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자리인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한 톨도 없어야 했다. 대통령은 이미 매디슨에게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며, 자신이 택한 이 인물이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싶어하는 의중까지 전했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레나와 브룩스는 그야말로 ‘털어봐야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매디슨의 이력과 살아온 과정에 혀를 내두른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학대학의 학장을 지내고, 지방법원 판사에 이어 현재 항소심 재판관으로 일하는 그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거대한 기둥 같은 사람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가 써온 글을 보면,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야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천문학부터 컴퓨터공학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저서부터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묘한 뉘앙스로 의견을 밝힌 글까지, 그가 남긴 모든 글에는 미래를 내다보며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아온 사람의 뜨거운 노력이 녹아 있었다. 레나와 브룩스는 이 완벽한 인물에 대해 한층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다. 누군가 매디슨을 죽이

러 나선 것이다.

너무 완벽해서 불안한 신임 대법관 후보, 그런 그를 처단하려 나선 의문의 세력과 감춰진 비밀

신임 대법관을 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임박해오는 어느 날, 레나는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남자에게 다급히 처단해야 할 인물의 명단이 전달되었으며, 그 이름 중에 매디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대체 누가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는 매디슨을 죽이려고 할까? 레나는 큰 혼란에 휩싸인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맞먹으리라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두뇌와 소신을 가진 인물, 야망은 있지만 대나무처럼 청렴한 사람이라고 여긴 매디슨이 정말 자신이 판단한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빼앗을 이유가 없다. 레나와 브룩스는 다시 조사의 원점으로 돌아와, 매디슨이 과연 두 사람이 ‘지켜줘야 마땅한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다. 에드먼드 매디슨, 그는 누구인가? 어쩌면 악인이 더 많이 활개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레나가 죽을 힘을 다해 막으려는 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될 지도 모른다. 매디슨의 정체를, 그리고 그를 없애버리려는 자들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살인사건들 사이에서 묘한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대통령의 반대세력들이 나서서 레나의 조사를 방해하기에 이른다. 이야기는 피터 레나와 매디슨을 죽이려는 이름 없는 남자의 시선에서 번갈아 가며 이어지면서 긴박감을 더하고, 레나는 워싱턴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이, 권력을 향한 정치인들의 욕망이 집착에 가까운 위험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다.

날카로운 정치적 통찰력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암투가 절묘하게 조합된 정치 스릴러 소설이다. 총 두 권으로 완성될 ‘피터 레나 스릴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2권은 2018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저자 소개>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은 2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고, 「LA 타임스」에서 언론 비평가로 일했다. 「뉴스위크」의 회 전문기자로도 활동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우수한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를 처음 마련하고 총괄해 왔으며 ‘의식 있는 언론인 위원회(Committee of Concerned Journalists)’의 부대표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Bill Kovach of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2001) 등이 있다.

제목 : DANCING WITH THE TIGER

가제 : 호랑이와 함께 춤을

저자 : Lili Wright

출판사: G.P. Putnam's Sons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434

장르 : 역사/서스펜스



탄탄한 줄거리와 인물은 기본, 독자의 머리, 가슴, 깊숙한 욕망까지 건드리는 소설

마약에 찌들어 사는 '약쟁이' 크리스토퍼 메독스. 미국인인 크리스토퍼는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멕시코에 지낸다. 아즈텍의 유물이 아직도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는 멕시코에서, 갠찰은 유물을 건져 돈을 벌고 과테말라로 떠나는 것이 크리스토퍼의 꿈이다. 마약이 망고보다 저렴한 과테말라, 금방 만든 토르티야와 염소 고기 요리가 자신을 맞아주리라 생각하면서, 크리스토퍼는 스스로를 '약탈자'로 부른다.

어느 날 동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청록색의 가면 하나. 푸른빛과 녹색빛이 감돌고, 이마에는 뱀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고, 찡그린 입 모양에 조개껍질로 만든 치아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한 쪽은 사라지고 남은 한 쪽은 굳게 닫혀 있다.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가면이었다. 크리스토퍼가 발견한 이 의문의 가면은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하기 이전 시대의 유물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곤잘레스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다.

3년간 만난 약혼자 데이비드와 결혼을 앞둔 애나. 박물관 큐레이터인 데이비드에게 시커먼 옷을 입고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느닷없이 격렬한 키스를 한다. 그리고는 결혼 반지와, 그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출처 불명의 베이지색 여자 속옷을 돌려주고는 유유히 돌아온다. 곧장 차를 몰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만, 그곳에도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애나의 아버지, 대니얼 램시는 미국에서 멕시코 고대 가면을 가장 많이 수집한 인물.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아버지의 수집품을 사들여 전시하기로 하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돌연 박물관 측에서 수집품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잠정적으로 전시 계획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곤잘레스를 통해 얼마 전 발견된 아즈텍 가면에 관한 소식을 접한다. 바로 크리스토퍼가 발견한 가면이었다.

우연히 세상에 등장한 아즈텍 가면, 가지려는 자,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된다

500년도 더 된 15세기, 장례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가면. 곤잘레스는 애나의 아버지에게 크리스토퍼를 만나 가면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한다. 어찌보면 황당한 이 거래에 무조건 나서려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는 애나. 절대 물려서지 않는 아버지는, 그 가면이

다름아닌 고대 아즈텍족 최후의 황제, ‘몬테수마’의 죽은 얼굴에 덮였던 가면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거래를 놓치면, 토마스 말론이 가져가 빛도 못보고 개인 소장품으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멕시코에 사는 말론은 어린 나이에 돈더미에 앉은 자로, 아버지의 라이벌이다. 그것도 아니면 멕시코의 마약왕, 레예스가 거머쥐고 아무렇게나 던져둘지도 모를 일이다.

마약중독자가 발견한 몬테수마의 가면, 이 가면을 이용해 망가진 자신의 삶과 명성을 되찾으려는 애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당한 후 불길한 기운이 가득한 개인 예배당에 가면을 몰래 보관하고 싶어하는 말론, 그리고 멕시코 바깥으로 이 귀중한 가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약왕 레예스. 가면은 누구의 손에, 어디로 가게될까?

<저자 소개>

저자인 릴리 라이트(Lili Wright)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유타, 그리고 멕시코에서 10여년 간 기자로 일하며 <뉴욕타임즈>, <볼티모어 선> 등 미국 전역에서 발행되는 여러 신문에 기고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작문 전문석사를 취득한 후 드퍼 대학교에서 글쓰기와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다.

“In her **energetic debut novel**, the **sprawling literary thriller** *Dancing with the Tiger*, Lili Wright straddles borders and genres... **Take [a] high-stakes game of keepaway, add several pairs of lovers, and you have everything you could want in a summer caper.** But *Dancing with the Tiger* has literary ambitions as well. It strives to comment on grief, love, citizenship, the human spirit, the impulse to wear a mask (whether literal, as here, or metaphorical) and a host of other elevated themes. Quite often, it hits the mark. Toggling among nearly a dozen points of view, Wright demonstrates her range as a storyteller... The result is a novel that vacillates in tone and genre. At times the narrative is as heavy as the air before a storm, wrestling with life’s persistent questions; at other times it zips along, aiming [for] thrills and surprises... [A] real romp; chapters end like old-school cliffhangers. Peppered throughout, blocks of delightful prose enjoy a laugh at the novel’s (and the genre’s) expense [and] every page is shot through with golden threads of striking images...**The chorus of the many voices of Oaxaca – expats, tourists and locals alike – creates a siren song that keeps you turning the pages. This novel has much in common with Anna’s favorite drink, the margarita, said to be the brainchild of an American Mexiphile: It’s salty-sweet, refreshing and more powerful than you think.**”—*New York Times Book Review*

“A **whirling tale of art and its sometimes sordid acquisition**... [In] short, punchy chapters... [*Dancing with the Tiger*] races through the antics of...[a] rapacious cadre of thieves, collectors, murderers, bounty hunters and art lovers... [Wright] explores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ng

and its scent of exploitation [and] takes us into the underground world of art laundering, where stolen objects are washed clean by corrupt dealers with fake provenance papers... [Lots of] valuable insights to unearth in this wild novel.”—*The Washington Post*

“The **fast-paced**, 450-page literary thriller **combines mystical realism with reporter-solid revelations** about Mexico’s drug war and the issue of relic repatriation in the art world. Set largely in Oaxaca, Mexico, it’s **an immersive exploration of place and cultural veneration of the sacred object.**” —*Outside*

“A **fast-moving [and] intricately wrought thriller**. Clearly written with great care, the novel plumbs the depths of love and obsession in complex yet delicately woven themes... [a] journey of self-discovery [set] within a powerful story full of danger and pathos that **will appeal to fans of Megan Abbott, Denise Mina, and Minette Walters.**” —*Booklist* (starred review)

“**Thrilling...** A deep look at what it means to be masked, Wright's novel is a worthwhile read for anyone in search of an authentically flawed heroine who learns to remove her own mask in a world where remaining hidden feels like the safest option.” —*Publishers Weekly*

“**[A] fresh, non-stop story** that will appeal to fans of all types of suspense fiction” —*Suspense Magazine*

And following are two high-profile mentions in summer round-ups:

A *Cosmopolitan* Summer beach read:

<http://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books/g5693/beach-reads-summer-2016/?slide=12>

One of *National Geographic*’s “12 Travel Books to Read Before Summer Is Over”:

<http://www.nationalgeographic.com/travel/travel-interests/tips-and-advice/summer-reading-list-travel-books/>

NON-FICTION

제목 : AGE OF ANGER

가제 : 분노의 시대- 좌절된 기대로 인한 분노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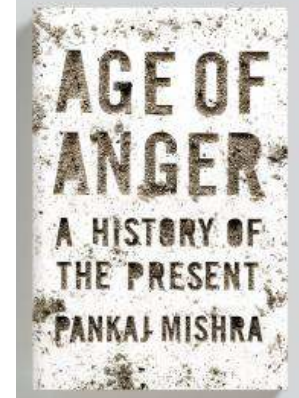
저자 : Pankaj Mishra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7년 2월 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역사/정치



끊이지 않는 총기사건, 테러, 물지마 범죄. 인간은 어떻게 분노의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는 우리에게 더 나아질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 주었다. 모더니티, 세속주의, 개발을 긍정적인 것이라고 믿으며 세계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우리가 추구해 왔던 가치들이 도리어 해가 되는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역사를 통해 분노의 뿌리를 찾고, 증오로 가득한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 제시

안정, 번영, 자유에 대한 기대가 좌절될 때 사회는 분노한다. 공식적인 신분제가 폐지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와 차별, 불합리는 존재한다. 사회의 분노는 악당을 상징하여 그들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가거나, 대립각을 세우며 적을 만들고, 잃어버린 황금시대에 대한 향수, 특정 대상 없는 분노, 염세주의적 폭력으로 발현된다. 지나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여전히 깊은 불평등을 떠안고 있는 세계에서 미국, 유럽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분노는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만 ‘혐오’가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분노는 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이다.

이 책은 분노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현대 사회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대전을 유발한 19세기의 역사부터 IS와 같은 오늘날의 이슈까지를 통해 짚어 나간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의 근원을 알 수 없던 분노의 뿌리가 역사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주며 오늘날 극명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증오와 갈등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는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리는 현실과 구조를 비판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애나 반대로는 무력감에 빠진 개인들에게도 생각을 촉구한다. 혐오, 흉악 범죄, 갈등이 매일처럼 도사리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시의성

을 가질 도서이다.

**프로포절 상태로 독일 Fischer 계약, 미국 Farrar, Straus & Giroux Inc, 영국 Allen Lane (Penguin)
에서 출간 예정**

프로포절 상태로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 옵션으로 계약된 주요도서로 2017년 2월 7일 출간 예정이다.

<목차>

1. 프롤로그: 잊혀진 역사의 국면들
2. 공간을 비워내다: 역사의 승자들과 그들에 대한 환상
3. 진보해 나가는 사회의 모순 (Loving Oneself Through Others)
4. 나의 종교를 잃는다는 것 - 이슬람, 세속주의, 혁명
5. 나의 종교를 되찾는다는 것과 적을 만드는 것 - 메시아주의, 국가주의
6.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찾아서 - 니힐리즘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7. 에필로그 - 현실을 찾아서

<저자 소개>

판카지 미슈라(Pankaj Mishra)는 『FROM THE RUINS OF EMPIRE』라는 전작으로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Book of the Year'에 선정되기도 한 정치 에세이스트로, 영국의 떠오르는 석학이다.

제목 : THE LEADERSHIP GENIUS OF JULIUS CAESAR

가제 : 줄리우스 시저의 천재적인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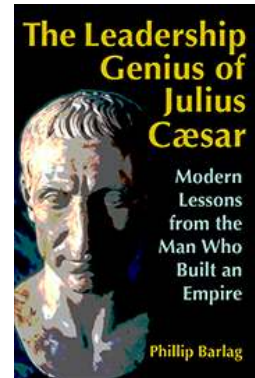
저자 : Phillip Barlag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

발행일: 2016년 10월 17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역사/경영



로마 제국을 설립한 인물, 줄리우스 시저에게서 배우는 탁월한 리더십의 기술

작은 그룹이든 거대한 기업이든,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대체로 잘해보려고 노력한다. 덕분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리더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야기한다. 적절한 리더십, 현대 사회에 맞는 리더의 역할은 시대와 함께 변해가고 그만큼 많은 연구자료와 지침서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잘해보려는 리더의 노력이 오히려 퇴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저자는 이처럼 어려운 리더의 길을 줄리우스 시저에게서 찾아본다. 기원전 100년에 태어난 인물, 너무 옛날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차이가 무색할 만큼 놀랍도록 현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 더없이 효과적인 리더로 활약한 인물을 집중 탐구한다.

줄리우스 시저는 역사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분석이 이루어진 인물이다. 그가 실제로 어떤 성격과 인품을 보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그가 뛰어난 리더였다는 사실이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리더들은 보통 민중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뜨거운 야망 혹은 쾌락에 찌든 변덕스러운 기분을 마음껏 충족하기 위해 무자비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다. 시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생애 초기를 보냈고, 스스로를 로마의 보통 시민들보다 더 낫다거나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수없이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적은 동맹이 되고, 동맹은 곧 헌신적인 추종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그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해적에게 인질로 붙잡히고, 적진을 향해 홀로 돌진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붙잡고도 용서한 일 등, 저자는 시저가 거대한 제국의 리더로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리더에게 남긴 교훈이 생생하게 드러난 각종 사건과 다채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힘과 권력을 동의어로 보지 않고 엄격히 구분했던 줄리우스 시저의 리더십은 절대 추종자에게는 잔혹한 힘을 휘두르지 않는 원칙으로 이어졌다. 공포는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심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입증한 인간적 진실성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시저를 따른 사람들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원해서 그를 따랐다.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리더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구도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에서 시저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수히 많다. 저자는 역사적인 분석이나 시저라는 인물의 생애 전체를 전기처럼 설명하는 대신,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시저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을 찾아보는 데 주력한다.

<목차>

머리말

1. 힘이 아닌 권력으로 리드하라
2. 맨 앞에서 리드하라
3. 관습에 저항하라
4. 스스로를 믿어라
5. 의사소통 창구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6. 힘을 가진 자와 협력하라
7. 적보다 한 발 더 먼저 나아가라
8. 권력 기반에 투자하라

정리하면서

<저자 소개>

필립 바르라그(Phillip Barlag)는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인 'World 50'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경영 분야 블로그를 비롯해 「Fast Company」, 「MIT Sloan Management Review」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UNKNOWN UNKNOWN

가제 : 모르는 줄도 몰랐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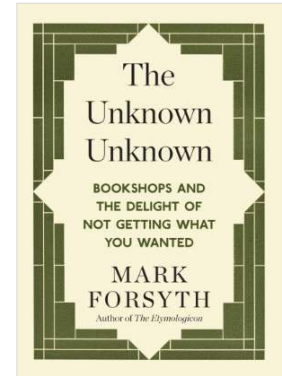
저자 : Mark Forsyth

출판사: Icon Books Ltd

발행일: 2014년 9월 4일

분량 : 3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실과 마주하게 해주는 신기한 곳, 서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뜻밖의 기쁨

모르는 줄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제든 여유가 있을 때, 혹은 꼭 필요한 시점이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내면 된다. 물론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지내는 동안 자신의 게으름이나 무심함을 탓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른다는 걸 알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예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사실이 문제다. 있는 줄도 몰랐기에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 그 사실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 저자는 바로 이런 사실, 모르는 줄도 몰랐던 사실들이 집결된 공간이 바로 서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점에 가야만 그 두 겹으로 된 미지의 세상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짚막한 에세이로 설득력 있게 전한다.

톨스토이, 스탕달, 세르반테스가 위대한 작가이고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을 남긴 사실은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목 정도만 알아도 다행일 뿐, 막상 어마어마한 두께와 평론과 서평을 보았을 때 왠지 지루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게다가 남들보다 책 읽는 속도가 유독 느린 사람이라면 선뜻 이 대가들의 작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읽어봐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가끔 마음을 짓누르긴 하지만 미루고 또 미루면서 일단 견뎌본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동한다면,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리면 그만이다. 원할 때 언제든 내 손에 책을 쥐고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색도, 책을 구입하는 것도 다 그런 책이나 작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있다는 걸 알아야 손에 넣을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기에, 수도가 어디인지 몰라도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지만, ‘에레훈’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수도를 고민해볼 일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저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필요한 지식을 너무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 사실을 한탄하면서, 너무 쉽고 빨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자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모른다는 걸 아는 사실을 더 편리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일 뿐, 존재조차 모르는 지식은 더 멀어졌다는 것이다. 몰라서 검색도 해볼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은 오직 서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서점에 가서, 분야별로 정리된 책과 그 책을

쓴 저자들을 직접 접해야 전혀 몰랐던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건 필요해서 얻은 지식이나 미뤄두었다가 마침내 알게 된 지식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올 것이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시점에 만난 반가운 사람처럼, 생경함에 담긴 신선함은 안 쓰던 근육이 기분 좋게 자극을 받을 때와 같은 특별한 기쁨을 안겨준다. 자신이 원하는 줄도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곳,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다양한 모습을 저자는 다양한 주제로 설명한다.

<목차>

희한한 책들

좋은 서점

성경책을 펼쳐 점을 보다: 책의 미래

서점의 유령

서점과 로맨스

신학

지리학

<저자 소개>

마크 포시스(Mark Forsyth)는 블로그 운영자이자 작가로, 첫 번째 저서 『Etymologicon』은 영국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어 「The Horologicon」, 「The Elements of Eloquence」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었다.

제목: REVERSE YOUR DIABETES

가제: 당뇨에서 벗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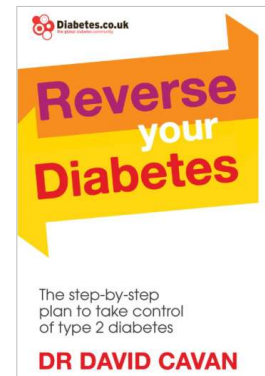
저자: David Cavan

출판사: Vermilion

발행일: 2014년 11월 6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건강



지병으로만 여기는 제2 당뇨병, 식생활 개선으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당뇨에서 벗어나는 방법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당뇨병은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다. 혈당을 거의 정상 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즉 인슐린이 포함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저자는 당뇨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로 일하면서 그와 같은 치료로 발생하는 문제를 수없이 목격했다. 처음에는 약물의 도움으로 당뇨병 관리가 수월해지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곧 대부분의 환자가 체중이 늘었고, 치료 초기에 나타났던 개선 효과도 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고 하나같이 지속적인 효과를 약속했지만 인슐린 치료제처럼 일시적인 개선만 나타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뇨병은 정말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며 딱히 해결방법이 없을까? 팔자려니 여기면서 불편해도 감내해야 할까? 저자는 의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제2형 당뇨병을 약물 치료로만 해결하려는 생각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물 보다는 매일 먹는 음식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이 책에서 소개한다. 당뇨는 점차 심해지는 진행성 질병이며 무조건 인슐린을 이용해 아주 오랫동안 치료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식생활만 제대로 지켜지면 인슐린을 전혀 맞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당뇨병의 치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뇨를 치료하려면 어떤 병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뇨가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이토록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약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서운 부작용이 따라오고 그로 인해 몸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혈당은 자꾸만 높아지고,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체중을 감량하면 몸에 쌓인 지방이 사라질 것이고, 지방이 줄면서 혈당도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면 이 같은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식단 조절만으로 충분히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뇨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다’를 표어로 내건 이 책에서, 저자는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열당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당뇨를 둘러싼 잘못된 생각과 위험한 정보를 바로잡는다. 상세한 식단, 장보러 갈 때 도움이 될 만한 당뇨 환자를 위한 식재료 목록, 즐겨 먹지만 해로운 음식을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요령, 익숙한 재료로 새롭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 등이 함께 제공된다.

<목차>

- 1장. 가장 중요한 사실: 당뇨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 2장. 제 2형 당뇨란 무엇인가?
- 3장. 당뇨 합병증
- 4장. 기존의 치료법: 식단, 생활방식, 약물치료
- 5장. 당뇨와 유행병처럼 번진 비만의 관계
- 6장. 당뇨도 나을 수 있는 병일까?
- 7장. 체중 감량의 중요성
- 8장. 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을까
- 9장. 탄수화물의 모든 것
- 10장. 탄수화물 외에 다른 영양소와 음료
- 11장. 무기질, 비타민, 식이보충제
- 12장.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 (이하 생략 - 총 21장, 부록 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데이비드 캐번(David Cavan)은 영국 최고의 당뇨병 자가관리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당뇨병 치료로 명성이 높은 '본머스 당뇨·내분비 센터'에서 오랫동안 컨설턴트로 일했다. 현재 '국제 당뇨연맹'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 총괄로 일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웹사이트 Diabetes.co.uk를 운영하고 있으며, 18만 명의 웹사이트 회원과 함께 유익한 당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제목 : THE ANSWER

가제 :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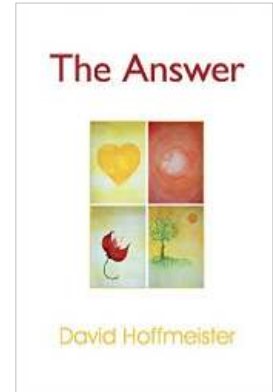
저자 : David Hoffmeister

출판사: Living Miracles Publications

발행일: 2015년 3월 1일

분량 : 80 페이지

장르 : 종교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명상, 신비주의자가 전하는 평화로운 시간의 해답

신비주의자인 저자 데이비드 호프마이스터는 ‘통합된 마음’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알리고, 평화로운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영적 깨달음을 통한 용서, 모든 판단을 배제하고 마음에 집중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은 종교와 영적인 믿음의 강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삶의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저자만의 특별한 과정으로 알려진다. 이 책은 ‘기적의 과정(A Course In Miracles)’에서 저자가 사람들에게 전한 심오한 가르침에 아름다운 수채화가 곁들여진 소책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현대인의 그릇된 판단과 자만심이 만들어낸 내면의 괴로움을 날카롭게 꼬집고 그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된다.

- 사소한 생각은 끈질기게 머릿속에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속아버린 마음은 그 생각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면서 그 생각 속에 자신의 내면의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해결해줄 방법이 있으리라 굳게 믿지만, 속아버린 마음 자체가 사소한 생각의 하나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일도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자신과도 거리가 멀다.

-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 복잡하고 나빠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들도 많지만 저자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음 속에 있을 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인 빅뱅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 고투를 벌이고, 어딘가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정답은 마음 속에 있다.

- 누군가가 한 말을 해석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과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같은 이치로, 칭찬과 비난도 굳이 바로잡으려 할 필요 없이 미소로 응하면 된다.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칭찬, 얼굴 표정과 행동에 대한 비판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고 고치려 하거나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한 칭찬과 비판에서 솟아난 생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물레는 돌고 또 돈다. 그 물레를 스스로 돌리거나, 그 움직임에 붙들려 있다는 착각 대신 그

저 가만히 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자신의 자아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 형성된 모든 관계가 특별해 보인다. 그러나 그 관계는 실제로 맺어진 관계라기보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연결일 뿐이며 아무 의미 없는 의미가 모여 있는 상대적인 결과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생각 속에서 살아가며, 몸은 현재를 살면서도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몸은 자율성이 없어서 마음과 따로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몸은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실현시킨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음.

<저자 소개>

데이비드 호프마이스터(David Hoffmeister)는 30년 이상 44개국을 방문하며 ‘통합된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전해왔다. 그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책, 오디오, 비디오 자료로도 제작되었다. 저서로는 『Quantum Forgiveness: Physics, Meet Jesus』, 『Unwind Your Mind Back to God: Experiencing A Course In Miracle』, 『The Mystical Teaching of Jesus』, 『Going Deeper』 등이 있다.

제목 : THE 12 POWERS OF A MARKETING LEADER

가제 : 마케팅 리더의 12가지 성공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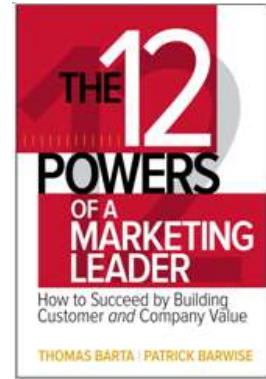
저자 : Thomas Barta, Patrick Barwise

출판사: McGraw-Hill Education

발행일: 2016년 9월 2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소비자와 회사 모두의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한 마케팅 리더의 리더십 전략

마케팅을 담당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브랜드나 시장, 회사가 중점적으로 공략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잘 안다.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정도 있다. 또 수십 년째 대부분의 분야에서 회사를 이끄는 CEO들은 조직 혁신의 중심을 시장에 두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를 더 제대로 알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압력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기회도 늘어났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한 조직 내에서 마케팅이라는 업무와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해야 한다. 회사의 생사를 거머쥔 당사자가 바로 영업에 매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업체들은 ‘소비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영업 부서를 키우고 지원하는 일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다. 영업직 직원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 고된 노력을 마다하지 않지만 그 노력이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에 큰 영향을 주거나, 개인적인 커리어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할까? 두 저자는 영업을 ‘하는 것’과 영업을 ‘리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마케팅의 기술이 아닌, 마케팅이 직업인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주제로, 소비자가 아닌 영업하는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법, 이를 통해 더 큰 업무 성과를 거두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케팅 리더로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 지원한 연구 ‘INSEAD’에서는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약 6만 8,000명의 마케팅 리더를 대상으로 그 비결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토머스 바타와 같은 대학 교수인 패트릭 바와이즈는 이 대대적인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추가로 수십 명의 CEO 등을 인터뷰하여 열두 가지 핵심 비결을 정리했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업 업무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도록 하고, 마케팅이 회사의 최우선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를 동료와 알고, 동감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혼자서 아닌 ‘팀’을 이뤄 함께 노력하는 것, 소비자와 회사,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커리어 모두에 유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매진하는 것 등 짐작할 수 있는 비결과 함께 다소 생소하고 놀라운 비결이 함께 담겨 있다.

책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1,232명의 선임 마케터가 직접 스스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업무를 이끄는 방법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의 이유, 사업과

개인의 커리어에 발생한 영향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마케팅 담당자의 역할과 업무 방식,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리더십 전문가와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마케팅 담당자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 비결이 무엇인지 밝힌다. 영업을 막 시작한 사람, 어느 정도 업무는 익숙하지만 나아갈 방향을 못 찾는 사람, 전문 마케터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 등 마케팅 일에 종사하고 그 업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익을 올리고 회사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열쇠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마케팅을 ‘하는’ 것과 마케팅을 ‘리드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1부. 보스를 움직여라

- 비결 1. 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 비결 2. 성과는 무엇이 되었건 다 알려라
- 비결 3. 가장 뛰어난 사람과 일하라

2부. 동료들을 움직여라

- 비결 4. 머리와 가슴, 둘 다 공략하라
- 비결 5. 복도를 돌아다녀라
- 비결 6. 먼저 시작하라

3부. 팀을 움직여라

- 비결 7. 구성이 중요하다
- 비결 8. 신뢰를 얻어라
- 비결 9. 결과를 공개하게 하라

4부. 자기 자신을 움직여라

- 비결 10. 자신이 속한 세상을 사랑하라
- 비결 11. 자신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지 알아야 한다
- 비결 12. 목표는 더 높이 세워라

4부. 이제 시작할 때

부록: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대하여

<저자 소개>

토머스 바타(Thomas Barta)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업체 맥킨지(McKinsey)에서 일하다가 리더십, 마케팅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패트릭 바와이즈(Patrick Barwise)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로 유럽 최대 소비자단체 ‘Which?’의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